

〈동명왕편(東明王篇)〉의 서술 체계와 인물 형상*

구본현**

- I. 서론
- II. 서문에 나타난 역사 인식의 전환
- III. 신성(神聖)의 의미와 서술 체계의 특징
- IV. 인물 형상에 나타난 신성(神聖)의 양상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동명왕편(東明王篇)〉의 서문을 통하여 창작 목적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삼아 〈동명왕편〉의 서사 구조와 인물 형상의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동명왕편〉의 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언급은 동명왕 신화가 “귀(鬼)”와 “환(幻)”이 아니라 “신(神)”과 “성(聖)”임을 깨달았다는 대목이다. 이는 〈동명왕편〉의 창작 목적이 동명왕 신화의 신성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신성(神聖)은 논리적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귀환(鬼幻)과 비슷해 보이지만 ① 천명(天命)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로서 ② 세상의 이로움을 위해 행해졌다는 점에서 귀환(鬼幻)과 구별된다. 이규보는 『구삼국사』의 내용을 축약하여 시화(詩化)하면서도 서장과 종장을 더하고 인물의 성격과 역할에 변화를 주어 동명왕 이야기에 신성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부여하였다.

〈동명왕편〉의 서장은 천명(天命)을 받은 삼황오제(三皇五帝)의 고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장에는 고구려와 동시대에 존속했던 한나라의 고조와

* 이 논문은 2017년도 동덕여자대학교 공모형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광무제 고사가 제시되어 있다. 본장에는 중국 성인(聖人)들의 행적과 유사한 해모수와 주몽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 체계는 중국의 신성한 사례를 인용하거나 연상시킴으로써 동명왕의 행적이 실재한 역사적 사실이며 천명(天命)에서 비롯한 신성한 행위였음을 증명하는 효과를 거둔다.

<동명왕편>은 ① 해모수가 천명을 받은 존재임을 누차 강조하고 ② 그 행적을 주몽만큼이나 자세하게 서술하며 ③ 유화의 역할을 강조하여 신모(神母)의 성격을 강조하는 한편 ④ 유리의 행적을 간략히 처리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천명에 의한 해모수의 계사(繼嗣)”와 “유화의 조력을 통한 주몽의 건국(建國)” 서사가 대등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게 되어 고구려의 건국과 그를 수성한 결과인 고려의 역사적 정당성과 신성성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게 된다.

핵심어 : 이규보(李奎報), <동명왕편(東明王篇)>, 해모수(解慕漱), 주몽(朱蒙), 유화(柳花), 천명(天命), 신성(神聖), 서술 체계, 인물

1. 서론

<동명왕편>은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26세 때인 1193년(명종23) 4월에 『구삼국사(舊三國史)·동명왕본기(東明王本紀)』의 내용을 오언고체(五言古體) 형식으로 담아낸 장편 영사시(詠史詩)이다.¹⁾ 본문과 협주(夾註)를 통해 고구려 건국에 대해 가장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는 점, 우리 역사를 소재로 한 최고(最古)의 장편 서사시라는 점 때문에 <동명왕편>은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 만큼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연구사를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처음에는 <동명왕편> 본문보다는 협주에 인용된 『구삼국사』의 내용에 주목하여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적 상징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 李奎報, <東明王篇>, 『東國李相國集』(한국문집총간2) 권3, 315~319면. 이하 <동명왕편>의 인용 면수는 생략한다.

그 결과 태양숭배 사상,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이행 양상, 유목민족에 의한 농경민족의 병합 등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동명왕편>에 반영되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²⁾

이와 달리 <동명왕편>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이해하려는 연구 또한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영웅서사시로서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세계 각지의 영웅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웅의 일대기, 즉 “탄생→시련→업적→승천”의 서사 구조가 <동명왕편>에도 나타남을 검증한 논의들이 이에 해당한다.³⁾

<동명왕편>을 문학작품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주제를 밝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창작 동기를 밝힘으로써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뒤를 이었다. <동명왕편>에는 창작 경위를 밝힌 서문이 병기(竝記)되어 있고 본문에는 사평(史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창작 동기를 쉽사리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 건국의 내력을 후대에 알리는 동시에 그를 계승한 고려의 수성(守成) 또한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명왕편>을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진 『구삼국사』가 당시에는 존재했으며 일반 백성들도 동명왕 신화를 널리 구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규보가 단순히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기 위해 <동명왕편>을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① 동명왕 신화에 대한 이규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동시에 ② 시재(詩才)를 시험하거나 발휘하기 위해서 <동명왕편>을 지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①의 시각에서 이규보의 역사의식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②의 시각에서는 시대 상황과 이규보의 생애에 의거하여 창작 의도를 추측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①의 경우에 외침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의식의 고취, 문벌귀족의 중화중심적 사유 체계를 극복하고자 한 신흥사

2) 이흥직, 『고구려의 흥기(1)』, 『국사상의 제문제』 4, 국사편찬위원회, 1959, 1~33면; 이흥직, 『고구려의 흥기(2)』, 『국사상의 제문제』 5, 국사편찬위원회, 1959, 1~26면; 김철준, 『<동명왕편>에 보이는 神母의 성격에 대하여』, 『혜암 유흥렬박사 화갑기념논총』, 탐구당, 1971; 신용호, 『이규보의 <동명왕편> 연구』, 『어문논집』 제21집, 안암어문학회, 1980, 55~66면.

3) 장덕순, 『영웅서사시 <동명왕>』, 『인문과학』 제5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0, 101~123면;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제10집,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165~214면; 주종연, 『서사시 <동명왕편>에 대한 일고찰』, 『어문학논총』 제7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8, 35~49면.

대부의 역사 의식, 풍자(諷刺)와 감계(鑑戒)의 효과를 통한 왕권 회복의 염원 등을 창작 동기 및 작품의 주제로 제시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⁴⁾

②의 경우에는 시재(詩才)를 과시하여 관직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명왕편>을 지었다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그 근거로는 누군가에게 올리는 글인 것처럼 서문에서 자신을 “복(僕)”이라 낮추어 부른 점, 김부식 등 문신(文臣)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삼국사기』에서 배제한 이야기를 되살려낸 점, 구관(求官)을 위해 많은 시문(詩文)을 지은 시기에 <동명왕편>을 창작하였다는 점, 창작 1년 전에 부친이 사망하고 생계가 매우 곤란하였다는 점, 무인(武人)의 기상과 용맹이 형상화되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⁵⁾

①과 ②를 종합하면 이규보는 자국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진 역사가이거나 문장을 도구 삼아 출세의 기회를 얻으려 한 속된 문사(文士)인 셈이 된다. 어느 쪽이든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규보의 생애, 시대 상황, 영사시의 특징 등 작품 외적 정보를 근거로 삼은 것이어서 양쪽 의견 모두 가설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⁶⁾

<동명왕편>의 창작 목적과 문학적 특징은 결국 서문에 대한 재검토와 작품에 대한 구체적 분석 결과에서 찾아야 한다. <동명왕편>은 서문과 본문으로 나뉘며 본문은 ① 중국 성인(聖人)의 사례를 제시한 서장, ② 고구려의 건국 내력을 서술한 본장, ③ 한 고조와 광무제의 사례를 통해 역사 인식

4)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중서사시: <동명왕편>과 <제왕운기>의 연구」, 『논문집』, 성균관대학교, 1962, 84~117면; 박창희, 「이규보의 <동명왕편>시」, 『역사교육』 제11·12합집, 역사교육연구회, 1969, 191~212면; 김경수, 「이규보의 서사시 <동명왕편>의 구조와 해석」, 『사회개발논총』 제15집,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3, 111~130면; 하강진, 「<동명왕편>의 창작 동기 재고」, 『문창어문논집』 제35집, 문창어문학회, 1998, 65~82면.

5) 박명호, 「이규보 <동명왕편>의 창작동기」, 『사총』 제52집,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0, 33~50면; 하승길, 「<동명왕편>의 성격에 대한 재론: 창작 동기와 神異性を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2집, 동아어문학회, 2009, 143~171면; 변동명, 「이규보의 <동명왕편> 찬술과 그 사학사적 위치」, 『역사학연구』 제68집, 호남사학회, 2017, 1~28면.

6) 최근에는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동명왕편>을 교육 매체나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려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현옥, 「글로벌 문화콘텐츠 창작 소재로서 영웅서사시의 가치에 관한 연구: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지혜, 「통일 이후 문학·역사 교과 통합 수업 연구: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이세현,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자아정체성 형성 연구: <동명왕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이학주, 「<동명왕편>을 통해 본 이규보의 스토리텔링 전개」, 『한국문학과 예술』 제24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7, 117~137면 참조.

을 드러낸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서문과 본문의 종장이 ①창작 동기, ②고대 중국 성인의 신이(神異)한 행적, ③작자의 사평(史評) 순서로 비슷하게 되어 있으며 서장에서 제시한 중국 성인의 신이한 행적이 본장에 나타나는 해모수와 주몽의 행적과 대응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⁷⁾ 이러한 논의는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라는 전제 아래 <동명왕편>에 나타나는 서사와 비서사의 의미맥락을 일관된 체계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서문을 본문에 포함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고 중국의 고사와 동명왕 신화의 대응 양상에 대한 분석이 소략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이밖에 고구려 건국신화의 형성과 변이를 검토한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동명왕편>을 주요 자료로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과 한국의 자료 전승 양상, 부여 건국신화와와의 관계, 고구려 건국신화의 형성과 변이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명왕편>을 주요 자료로 다루었다. 『구삼국사』의 내용이 중국 측의 자료와 여러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동명왕편>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⁸⁾

아울러 교감, 주석, 번역 등의 기초 작업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된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동명왕편>은 조선 후기에 간행된 중간본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것으로서 여러 군데 오자와 오류가 보인다.⁹⁾ 해석에서도 이견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각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예컨대 <동명왕편>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혼돈 상태였던 원기가 나뉘니 뒤
천황씨와 지황씨가 나타나셨는데
머리가 열세 개와 열한 개여서
그 모습 참으로 기이하였다.

7) 서술 체계에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손정인, 『이규보의 <동명왕편>의 구성양상과 작품의 성격』, 『한민족어문학』 제13집, 한민족어문학회, 1986, 323~344면; 황순구, 『서사시 <동명왕편>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참조.

8) 연구사에 대해서는 이복규, 『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성과 검토』, 『고구려연구』 제1집, 고구려발해학회, 1995, 81~102면; 이주영, 『삼국시대 건국신화의 기반과 전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참조.

9) “解夫妻(解夫妻)”, “神雀(神雀)”, “未嗣(未嗣)”, “導(善) 등의 誤記가 보인다.

元氣判沅渾, 天皇, 地皇氏,
三十一頭, 體貌多奇異.

“비혼(沅渾)”은 만물을 형성하는 원천인 기운이 달걀 모양으로 뭉쳐져 있던 창세 이전의 혼돈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판(判)”은 나뉜다(구별된다)는 뜻으로 원기 가운데 맑고 가벼운 것은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내려앉아 땅이 되었으며 둘의 조화로운 기운이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다.¹⁰⁾ “비(沅)”는 원래 “배(胚)”로 써야 하는데¹¹⁾ 의성어나 의태어처럼 보이기 위해 “혼(渾)”과 부수가 같은 글자로 바꾼 듯하다.¹²⁾

천지인(天地人)이 창조된 후 세상에 최초로 질서를 부여한 이들이 삼황(三皇)이다. “천황씨와 지황씨의 머리가 각각 열세 개와 열한 개여서 모습이 매우 기이하였다”는 것이 기존의 해석이다. 『구삼국사』의 기록이 신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두(頭)”가 머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세는 수사(數詞)로 보는 견해도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즉 천황씨와 지황씨는 열세 명과 열한 명의 형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¹³⁾ 이렇게 많은 형제가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매우 기이하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종장에서 광무제 고사를 “스스로 적복부에 응하여 거짓된 황건적을 쓸어 없애셨네(自應赤伏符, 掃除黃巾僞)”라 표현한 것은 오류에 해당한다. 광무제의 생애와 황건적의 난은 시대가 맞지 않으니 “황건(黃巾)”은 “적미(赤眉)”를 잘못 쓴 것이다. 황건적과 적미군을 혼동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10) 宋 歐陽修, <石篆詩>, 『居士集·外集』 권3: “始從天地胚渾判, 元氣結此高崔嵬.”; 『太平御覽·天部一·元氣』 권1: “『三五曆記』曰: ‘未有天地之時, 混沌狀如鷄子, 溟滓始牙, 濛鴻滋萌, 歲在攝提, 元氣肇始.’ 又曰: ‘清輕者上爲天, 濁重者下爲地, 沖和氣者爲人. 故天地含精, 萬物化生.’”

11) 『文選·江海』(권12)에 실린 郭璞의 <江賦>에 “類胚渾之未凝, 象太極之構天.”이라 하였는데 李善이 “言雲氣杳冥, 似胚胎渾混, 尙未凝結.”이라 注하였다. 宋 王禹稱, <重修北岳廟碑奉教撰>, 『王黃州小畜集』 권16: “臣聞: 元氣胚渾, 結而爲山岳, 幽靈附靈, 降而爲神祇.”

12) “沅”는 자전에 보이지 않는데 “沅”, “沔” 등의 이체자로 보인다. “沅”와 “沔”는 『康熙字典』에 모두 “水名”이라 되어 있다. “沅”는 인명에 쓰인 용례가 확인된다. 宋 梁克家, 『淳熙三山志·人物類六·科名』 권31: “希沅, 字子長.”

13) 출전에 따라 천황은 13두나 12두로 다르게 표현된다. 『藝文類聚·帝王部一·天皇氏』 권11: “天地立, 有天皇十三頭, 號曰天靈, 治萬八千歲…一姓十三人也.”; 『太平御覽·皇王部三·天皇』 권78: “天皇十二頭, 一姓, 十二人也…古人質以頭爲數, 猶今數鳥獸以頭計也. 若云十頭, 非十頭也…天皇兄弟十二人, 身貌相類, 不可分別, 治在柱州, 昆侖也.”

실수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규보에 의한 것인지 전승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처럼 <동명왕편>을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독해가 필요해 보인다. 산문 기록인 『구삼국사』의 내용을 똑같은 산문 형식으로 옮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에 이규보는 이를 한시로 바꾸어 표현하였을 것이다. 협주에 인용된 『구삼국사』의 기록과 <동명왕편>의 해당 부분을 비교해 보면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용된 『구삼국사』의 기록이 완전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규보에 의해 적절히 편집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동명왕 이야기의 앞과 뒤에 역사 인식이 드러나는 구절을 장황할 정도로 길게 서술하였다는 점이 『구삼국사』와 구분되는 <동명왕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희와 주몽의 대화 부분에 변개가 확인되며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에서도 일부 한시 작법의 관습에 따른 표현의 변이가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규보가 『구삼국사』의 주요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창작 의도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서술 체계, 인물 형상, 표현 방식 등에서 편집과 개작을 가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문에 나타난 창작 경위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명왕편>의 서술 체계와 인물 형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물론 자구(字句)의 의미와 표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동명왕편>의 서문과 본문의 연관 양상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서문에 나타난 역사 인식의 전환

기존연구에서는 <동명왕편>의 창작 동기와 역사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 작품 이외의 2차 자료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여전히 앞머리에 병서(並書)된 서문이다. 창작 의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의하여 읽어야 할 문맥이 존재하므로 전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특히 밑줄 친 부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神異)한 일을 많이 이야기하여 비록 어리석은 사내와 못난 아낙들도 그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 내가 일찍이 (동명왕의 일을) 듣고 웃으며 말하였다. “앞선 스승인 중니(공자)께서는 괴(怪), 력(力), 난(亂), 신(神)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진실로 황당(荒唐)하고 기괴(奇詭)한 일이니 우리가 말할 거리가 아니다.” 『위서(魏書)』와 『통전(通典)』을 읽다 보니 또한 그 일이 실려 있는데 간략할 뿐 자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찌 안의 일은 자세하게 쓰고 밖의 일은 간략하게 쓰려는 의도 때문이었겠는가?

계축년(1193년, 명종23)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자취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한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귀(鬼)와 환(幻)이라고 생각하였다. 세 번을 거듭 탐미하여 그 근원에 점차 이르게 되고 보니 환(幻)이 아니라 성(聖)이었으며 귀(鬼)가 아니라 신(神)이었다. 하물며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는 국사(『구삼국사』를 가리킴)에서 망령되어 전하였겠는가?

(그런데) 김부식 공께서 국사(『삼국사기』를 가리킴)를 다시 편찬하실 때 그 일을 간략하게 하셨다. 아마도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책이니 지나치게 기이한 일을 후세에 보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셔서 생략했을 것이다.

당 현종의 본기에 실린 <양귀비전>을 살펴보니 방사(方士), 승천(升天), 입지(入地)의 일들이 전혀 없는데 시인 백거이는 그 일이 인멸될까 걱정하여 노래를 지어 기록하였다. 저것(<장한가(長恨歌)>를 가리킴)은 진실로 황음(荒淫)하고 기괴(奇詭)한 일인데도 오히려 (시로) 읊어 후세에 보였는데 하물며 동명(東明)의 일은 변화와 신이를 가지고 여럿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라를 창건한 신의 자취이니 이것을 서술하여 (전하지) 않으면 장차 후세 (사람들이) 무엇을 볼 것인가? 이 때문에 시를 지어 기록하니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디 성인(聖人)의 봉지(封地)임을 알게 하고자 한다.¹⁴⁾

이규보는 사람들이 전하는 동명왕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익히 알고 있

14) “世多說東明王神異之事，雖愚父、駭婦亦頗能說其事。僕嘗聞之，笑曰：‘先師仲尼不語怪、力、亂、神。此實荒唐、奇詭之事，非吾曹所說’及讀『魏書』『通典』，亦載其事，然略而未詳，豈詳內略外之意耶！越癸丑四月，得『舊三國史』，見『東明王本紀』，其神異之迹，踰世之所說者。然亦初不能信之意，以為鬼幻。及三復耽味，漸涉其源，非幻也，乃聖也；非鬼也，乃神也。況國史直筆之書，豈妄傳之哉！金公富弼重撰國史，頗略其事。意者：公以為國史矯世之書，不可以大異之事，為示於後世而略之耶！按唐『玄宗本紀·楊貴妃傳』，並無方士、升天、入地之事。唯詩人白樂天，恐其事淪沒，作歌以志之。彼實荒淫、奇詭之事，猶且詠之以示於後，矧東明之事，非以變化神異眩惑衆目，乃實創國之神迹，則此而不述，後將何觀？是用作詩以記之，欲使夫天下知我國本聖人之都耳。”

었다. 나중에 『위서』와 『통전』을 읽다가 동명왕의 기록을 발견하였는데 앞서 들은 것보다 내용이 소략하였다.¹⁵⁾ 이규보가 언급한 “상내략외(詳內略外)”는 노(魯)와 관련된 기록은 자세히 적고 나머지 제후국의 일은 간략하게 적는다는 『춘추(春秋)』의 필법이다.¹⁶⁾ 실제로 중국의 역사서에 실린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동명왕편>에 비해 내용이 소략할 뿐만 아니라 변방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중국의 기록에는 이름 모를 시비(侍婢)가 동명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¹⁷⁾ 또한 “주몽(朱蒙)”이나 “동명(東明)”이라 언급할 뿐 “동명왕(東明王)”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동명왕”이라는 명칭은 <동명왕편>, 즉 『삼국사기』에 처음으로 나타난다.¹⁸⁾

이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변방의 소국이므로 간략하게 적기 마련이지만 이규보는 그렇게 된 이유가 “상내략외(詳內略外)”의 필법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았다.¹⁹⁾ “상내략외(詳內略外)”의 원칙과 상관없는 『삼국사기』에

- 15) 『위서』보다 소략한 『통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通典·邊防二·東夷下·高句麗』 권186: “高句麗，後漢朝貢，云本出於夫餘先祖朱蒙，朱蒙母河伯女，爲夫餘王妻，爲日所照，遂有孕而生。及長，名曰朱蒙，俗言善射也。國人欲殺之，朱蒙棄夫餘，東南走渡普通水，至紇升骨城，遂居焉，號曰句麗，以高爲氏。及漢武滅朝鮮，以高句麗爲縣，屬玄菟郡。賜以衣帟、朝服、鼓吹，常從玄菟郡受之。後稍驕恣，不復詣郡，但於東界築小城以受之，遂名此城爲柵溝澧。溝澧者，句麗名城也。王莽時，發句麗兵以伐匈奴。其人不欲行，皆亡出塞爲寇盜，莽更名高句麗王爲下句麗侯。於是朔人寇邊愈甚。光武建武八年，遣使朝貢，帝復其王號。”
- 16) 『春秋左傳·襄王元年』(권29)의 孔穎達 正義에 “詳內略外, 『春秋』之常.”이라 하였다. 蘇洵, <春秋論>, 『宋元學案·蘇氏蜀學略』 권99: “吾觀『春秋』之法, 皆周公之法而又詳內而略外. 此其意: 欲魯法周公之所爲, 且先自治而後治人也, 明矣.”
- 17)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後漢의 王充이 지은 『論衡·吉驗』이다. 여기에 “北夷婁離國王侍婢有娠, 王欲殺之. 婢對曰: ‘有氣大如鷄子, 從天而下, 我故有娠.’ 後產子, 捐於猪溷中, 猪以口氣噓之, 不死; 復徙置馬欄中, 欲使馬藉殺之, 馬復以口氣噓之, 不死. 王疑以爲天子, 令其母收取, 奴畜之, 名東明, 令牧牛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掩淩水, 以弓擊水, 魚鼈浮爲橋, 東明得渡. 魚鼈解散, 追兵不得渡. 因都王夫餘. 故北夷有夫餘國焉. 東明之母初妊時, 見氣從天下, 及生, 棄之, 猪馬以氣呼之而生之. 長大, 王欲殺之, 以弓擊水, 魚鼈爲橋. 天命不當死, 故有猪馬之救; 命當都王夫餘, 故有魚鼈爲橋之助也.”라 하였다. 『三國志·魏書·東夷傳』(권30)의 주에 인용된 『魏略』 등 이후의 중국 자료에도 주몽의 어머니가 “侍婢”로 기록되어 있다.
- 18)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국신화를 종합적으로 다룬 이복규, 『부여, 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1998; 이지영,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 월인, 2000; 조현철,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참조.
- 19)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및 기존연구에서는 “豈詳內略外之意耶!”를 “국내의 것은 자세히 하고 외국의 것은 소략히 하려는 뜻인지도 모른다”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 문장 앞에 공자가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는 인용과 함께 이규보 자신도 황당하고 기괴한 것으로 여겼다는

서조차 자국의 역사인 동명왕 이야기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고려의 역사를 막론하고 동명왕 신화를 황당하고 기괴한 것으로 치부하였기에 해당 부분을 대폭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규보의 생각이다.

이규보의 이러한 인식은 『구삼국사』를 탐독함으로써 바뀌게 된다. 인식 전환의 핵심 내용은 ① 동명왕 이야기가 귀(鬼)가 아닌 신(神)이며 환(幻)이 아닌 성(聖)에 해당한다는 것, ② 따라서 우리나라가 하늘에 의해 봉해진 성인의 땅이라는 것이다.²⁰⁾ 이러한 깨달음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동명왕편>을 지었다는 것이 서문의 주요 내용이다. 동명왕 이야기의 신성성을 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고구려와 그를 계승한 고려가 성인이 세운 나라임을 후세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²¹⁾

그렇다면 이러한 창작 목적이 <동명왕편>의 서술 체계와 표현 방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규보가 언급한 “非幻也, 乃聖也; 非鬼也, 乃神也.”의 의미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환(幻)”은 허공에 매달린 실을 상형한 것으로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물이나 현상을 가리킨다. 나중에는 속임수를 부려 인간의 정신을 헛갈리게 함으로써 재미를 만들어내는 마술이나 묘기 등을 가리키게 되었다. 예컨대 칼을 삼키거나 불을 내뿜는 곡예사, 오이씨를 심어 곧바로 열매가 열리게 하는 마술사 등을 “환인(幻人)”이라 불렀다.²²⁾ 반면에 “신(神)”은 인간에게 길흉을 알려주는 하늘의 현상을 의미하는 “시(示)”²³⁾와 번개를 상형한 “신(申)”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신(神)”은 인간을 지켜주는 하늘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 환(幻)과 신(神) 모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

구절이 있다. 따라서 “詳內略外的 필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너무 황당하고 기괴하여 생략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20) 원문의 “都”는 封地나 采地를 가리킨다. 『周禮·大司徒』의 “凡造都鄙.”에 대한 주에 “都鄙, 王子弟公卿大夫采地, 其界曰都. 鄙所居也.”라 하였다.

21) 이러한 이규보의 인식 전환에 대해 건국을 위한 神異를 다른 사건들과 구분하여 강조한 것이라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성지, 「<동명왕편>에 나타난 神異의 의미」, 『이화어문논집』 제20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2002, 275~293면 참조.

22) 漢 許慎, 『說文解字』: “幻, 相詐惑也.”; 『康熙字典』: “幻, 妖術也. 或作眩… 即今吞刀吐火, 植瓜種樹, 屠人截馬之類, 皆是也.”

23) 漢 許慎, 『說文解字』: “示, 天垂象, 見吉凶, 所以示人也. 從二. 三垂, 日月星也. 觀乎天文, 以察時變. 示, 神事也.” 한편 “示”를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의 상형으로 보기도 한다. 허진웅, 『중국 고대사회』, 지식산업사, 1997, 466면 참조. 어느 쪽이든 하늘이라는 존재와 연관된다.

이한 현상이지만 그 주체와 목적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귀(鬼)”는 인간이 죽은 뒤의 존재 양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음기(陰氣)를 지닌 귀(鬼)가 사사로이 해를 끼칠 때 여귀(厲鬼), 즉 악귀(惡鬼)가 된다.²⁴⁾ 성(聖)은 큰 귀를 가진 사람이 선 채로 상대방의 입에 귀를 기울이는 모양이다.²⁵⁾ 다른 사람의 하소연에 공감하거나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귀(鬼)와 엄격하게 구별된다.

한편 이규보는 환(幻)과 귀(鬼)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황당과 기괴를 언급하였다. 황당(荒唐)은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을 가리킨다. 인과율 등의 논리적 연관성이 결여된 사건이나 현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환(幻)과 비슷하다. 기괴(奇詭)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가리킨다. 상대방을 현혹함으로써 부당하게 사익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귀(鬼)의 속성과 비슷하다.

해모수가 채찍을 휘둘러 궁전을 세운 것, 짐승으로 변신하여 하백과 겨룬 것, 주몽이 사슴을 협박하여 홍수를 일으킨 것 등은 합리적 설명이나 논증을 벗어난 것이어서 황당한 사건이라 생각하기 쉽다. 유화를 유혹하고 하백을 속이는 해모수의 행동이나 송양(松壤)한테서 나라를 빼앗는 주몽의 행위 또한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루어져 있기에 기괴의 성격을 지닌다고 여길 만하다.

이규보 또한 처음에는 이와 같이 생각하였으나 『구삼국사』를 세 번이나 꼼꼼히 읽고 난 뒤 해모수와 주몽의 사적이 귀환(鬼幻)이 아닌 신성(神聖)임을 깨닫는다. 귀환(鬼幻)과 상반되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규보가 언급한 신성(神聖)은 황당 및 기괴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성한 사건은 ①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필연에 따른 역사적 사실로서 ② 거짓말과 속임수처럼 보이긴 하나 세상 전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① 동명왕의 사적이 천명(天命)에 의한 것임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이 필연에 따른 사실(史實)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② 고구려의 건국이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백성을 위

24) 『爾雅·釋訓』: “鬼之爲言歸也.”; 漢 許慎, 『說文解字』: “人所歸爲鬼. 從人, 象鬼頭. 鬼陰氣賊害, 從厶.” “厶”는 “私”와 같다.

25) 김연중, 『한자의 뿌리』 1, 문학동네, 2001, 490면.

한 것임을 밝힐 수 있다면 동명왕이 곧 성인(聖人)임을 증명할 수 있다. 신성한 사건의 주인공이 곧 성인인데 만민(萬民)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만사(萬事)를 제도(濟度)하는 것이 성인의 임무이기 때문이다.²⁶⁾

따라서 서문에 나타난 <동명왕편>의 창작 동기는 “동명왕이라는 성인에 의해 이루어진 고구려의 건국이 천명에 의한 필연임을 분명하게 형상화하여 후세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의 역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역시 성인에 의해 건국되었음이 분명하다면 그를 계승한 고려의 건국과 수성 또한 자연스레 정당화된다. 아울러 당 현종의 일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많은 이들이 백거이의 <장한가>에 의지하여 그 사적을 기억하고 있듯이 『구삼국사』와 『삼국사기』에 기록된 동명왕의 사적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란 까닭에 한시라는 형식을 빌려 <동명왕편>을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신성(神聖)의 의미와 서술 체계의 특징

<동명왕편>에 실린 해모수와 주몽의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구삼국사』의 내용을 충실히 요약하고 있지만 창작 의도에 따라 서술 체계를 달리하였다. <동명왕편>은 동명왕 신화를 본문에 두고 그 앞에 중국의 사적(史蹟)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작자 자신의 사평(史評)을 개진하는 삼장(三章)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명왕 신화를 서술한 본장에서도 부분적인 개작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규보가 의도적으로 서술 방식에 변화를 꾀했다는 증거가 된다. 즉 동명왕 이야기의 신성성을 분명하게 형상화하고자 『구삼국사』의 내용을 선별적으로 서사화한 것이다.

신성한 사건은 인간의 상식으로 그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재하는 역사적 사실이어야 한다. 사건의 실재를 증명하려면 증언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 평양에 있는 기린굴(麒麟窟)과 조천석(朝天石)이 증거라면 당대인의 언급이 전승된 공식적인 기록, 즉 『구삼국사』의 내용이 증언 역할을 한다.

이규보는 처음에 『구삼국사』의 기록을 거짓 증언, 즉 위증이라 여겼으나

26) 『太平御覽·人事部四十二·敘聖』 권401: “聖人與衆同欲, 是以濟事.”

점차 그 근원을 섭렵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서문에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명왕편>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

<동명왕편>의 서장과 종장에서 삼황오제, 한 고조, 광무제의 고사를 지나 치다 싶을 정도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 추론의 단서가 된다. 『구삼국사』에 중국의 고사가 실릴 까닭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규보가 의도적으로 덧붙인 것이 분명하다. 박학다식으로 유명했던 만큼 이규보는 중국의 성인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규보가 언급한 삼황오제, 한 고조, 광무제는 천명을 받아 새로운 국가와 문명을 창시한 성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신성한 존재 가운데 가장 높고 큰 존재는 천제(天帝), 즉 하늘이다.²⁷⁾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은 인간이 황당과 기괴로 오해할 법한 사건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거짓이나 속임수로 보이는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이르러서야 인간은 그것이 하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규보가 <동명왕편>에서 해모수와 주몽의 행적을 여러 차례 하늘과 연결 지어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 ① 해동의 해모수는 진실로 하늘의 아들이로다.
海東解慕漱，真是天之子。
- ② 예부터 명을 받은 임금은 어찌 하늘이 내리신 것이 아니겠는가?
自古受命君，何是非天賜？
- ③ “천제의 아들이 훌륭한 집안과 인연 맺기를 청하오.”라 대답하셨다.
報云“天帝子，高族請相累。”
- ④ “그대께서는 상제의 자손이시니 신령한 변화를 시험하기를 청합니다.”
“君是上帝胤，神變請可試。”

27) 『太平御覽·天部二·天部下』 권2: “神之天者，昊天上帝。”

- ⑤ 하백이 (해모수의) 신성함을 알고서는 술을 차려 즐거운 잔치를 벌였다.
河伯知有神, 置酒相燕喜.
- ⑥ “하늘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이 난리를 피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天孫河伯甥, 避難至於此”
- ⑦ (송양은) 신선의 후손임을 애써 자랑했을 뿐 천제²⁸⁾의 후손이 귀하신 줄 알지 못하였다.
苦矜仙人後, 未識帝孫貴.
- ⑧ 동명왕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그 터에 성을 쌓아주신 것이다.”
王曰“天爲我, 築城於其趾.”
- ⑨ 신성하고 또 신성하구나! 만세에 이르도록 올바른 일이로다!
神哉又神哉! 萬世之所趨!
- ⑩ 이로 미루어 생각건대, 처음 나라를 세운 임금의 성인이 아니었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因思草創君, 非聖卽何以?

이상의 예들을 보면 해모수와 주몽의 행적을 표현하기 위해 『구삼국사』에 비해 “천(天), 명(命), 제(帝), 신(神), 성(聖)” 등의 용어를 보다 빈번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명왕 신화의 신성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서장과 종장에 중국의 신성한 사건들을 배치한 후 이와 성격이 유사한 해모수와 주몽의 행적을 본장에 서술한 서술 체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서장과 종장에 고대 중국 성인의 행적을 배치한 것은 귀환(鬼幻)에서 신성(神聖)으로의 인식 전환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세 번에 걸쳐 『구삼국사』를 탐독한 결과 해모수와 주몽의 행적이 중국의 신성한 고사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명왕편>의 내용 중에는 중국의 신성

28) 『字彙』에 “帝, 上帝, 天之神也.”라 하였듯이 여기에서의 “帝”는 天帝를 가리킨다.

한 사건들과 유사한 것들이 많다. 이를 <동명왕편>에 서술된 사건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동명왕편> | 중국의 고사 |
|---|---|--|
| ① | 해모수는 오룡(五龍)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님. | 순(舜)은 오룡(五龍)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님. ²⁹⁾ |
| ② | 해모수는 오우관(烏羽冠)을 씌. | 태양은 머리에 까마귀를 신고 다님. ³⁰⁾ |
| ③ | 하백이 잉어로 변화자 해모수가 수달로 변화하여 쫓음. | 유강(劉綱)이 잉어를 만들자 번부인(樊夫人)이 수달을 만들어 잉어를 잡아먹음. ³¹⁾ |
| ④ | 하백이 해모수와 유희를 가죽 자루에 넣어 혁여(革輿)에 실음. | 제(齊) 환공(桓公)이 관이오(管夷吾)를 가죽 자루에 넣고 혁거(革車)에 실음. ³²⁾ |
| ⑤ | 유희가 겨드랑이에서 알을 낳음 | 노자(老子)가 어머니 겨드랑이에서 태어남. ³³⁾ |
| ⑥ | 주몽은 태어나서 한 달도 되기 전에 말을 할 줄 앎. | 황제(黃帝)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줄 앎. ³⁴⁾ |
| ⑦ | 주몽은 타고난 골격이 기이함. | 복희(伏羲), 문왕(文王), 한 고조, 광무제는 이마가 튀어나온 일각(日角)의 골격을 지님. ³⁵⁾ |
| ⑧ | 유희가 알을 낳자 이를 버렸는데 동물들이 돌봐주고 알에서 태어난 주몽이 왕이 됨. | 서국(徐國)의 궁녀가 알을 낳자 이를 버렸는데 동물들이 돌봐주고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서국의 왕이 됨. ³⁶⁾ |
| ⑨ | 주몽이 활로 파리를 맞힘. | 기창(紀昌)이 활로 벼룩을 맞힘. ³⁷⁾ |
| ⑩ | 주몽이 갈대로 줄을 만들어 물에 빠진 백성들을 구함. | 여와(女媧)가 갈대를 태운 재로 홍수를 막아 백성들을 구함. ³⁸⁾ |
| ⑪ | 주몽이 풀을 엮어 신하들의 위치(位次)를 정함. | 한 고조가 풀을 엮어 신하들의 위치를 정함. ³⁹⁾ |

29) 宋 王應麟, 『困學紀聞』 권7: “舜嘗駕五龍以騰唐衢, 武嘗服九駘以馳文塗, 此上御也.”

30) 『山海經·大荒東經』 권9: “一日方至, 一日方出, 皆載於鳥.”

31) 晉 葛洪, 『神仙傳·樊夫人』 권6: “綱唾盤中, 卽成鯽魚, 夫人唾盤中, 成鰕, 食其魚.”

32) 『太平御覽·雜物部一·膠』 권766: “桓公使人告魯曰: ‘管夷吾, 寡人之仇也, 願生得而親加手焉!’ 魯君許諾, 乃使吏鞞其拳, 膠其目, 盛之以鴟夷, 置之革車.”

33) 『藝文類聚·靈異部上·仙道』 권78: “其母懷之八十一歲乃生. 生時, 剖其母左腋出, 出而白首, 故謂之老子.”

34) 晉 葛洪, 『抱朴子·極言』 권13: “昔黃帝生而能言, 役使百靈, 可謂天授自然之體者也.”

35) 『太平御覽·皇王部三·天皇·太昊庖犧氏』 권78: “伏羲氏, 日角, 衡, 連珠. 宋均曰: ‘伏羲木精人也. 日角者, 骨表, 取象日所出房所立有星, 衡中有骨表而連珠象玉衡有星也.’”; 『太平御覽·皇王部九·周文王』 권84: “蒼帝姬昌, 日角鳥鼻, 身長八尺二寸.”; 『藝文類聚·帝王部二·漢高帝』 권12: “帝季, 日角戴勝, 斗胸, 龜背, 龍股, 長七尺八寸.”; 『後漢書·光武帝紀』 권1: “(劉秀)身長七尺三寸, 美鬚眉, 大口, 隆准, 日角.”

36) 『史記三家注·趙世家』 권43: “徐君宮人娠, 生卵, 以爲不祥, 棄於水濱. 孤獨母有犬名鵲倉, 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동명왕 신화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중국에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⁰⁾ 특히 복희, 여와, 순, 한 고조, 광무제 등은 문명을 건설하거나 나라를 세운 성인들이어서 해모수와 주몽 또한 신성한 인물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규보가 중국 성인의 고사와 유사한 신성성을 동명왕 신화에서 발견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 성인들과 동명왕의 사적에 보이는 유사성은 <동명왕편>의 서장과 종장에서 이규보가 중국의 고사를 열거한 까닭 또한 설명해준다. 서장에는 삼황오제의 사적이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시대 순서가 뒤섞여 있다. 이 부분은 별에 감응하여 태어난 소호(少昊)와 전옥(顛頊), 음식과 관련된 복희(伏羲)와 수인(燧人), 달력 및 농사와 관련된 요(堯)와 신농(神農), 자연재해를 극복한 여와(女媧)와 우(禹) 등 비슷한 성격의 고사로 대우를 이루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황제(黃帝)의 승천을 언급하고 있다. 여러 성인의 사적을 한데 아울러 “출생→업적→승천”으로 요약될 수 있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러한 특징은 본장에 서술된 동명왕의 서사 구조와 일치한다.⁴¹⁾ 동명왕의 일대기 각 부분에 대응하게끔 중국 성인의 고사를 재배치함으로써 과거 성인의 뒤를 잇는 새로운 성인, 즉 동명왕이 출현하였음을 극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서장은 순박했던 인심과 풍속이 쇠미해지면서 성인의 탄생과 자취가 드물어졌음을 탄식하며 끝나는데⁴²⁾

所棄卵以歸，覆煖之，遂成小兒，生偃王，故宮人聞之，更收養之。及長，襲爲徐君。”

37) 『列子·湯問』: “甘蠅, 古之善射者, 彀弓而獸伏鳥下。弟子名飛衛, 學射於甘蠅, 而巧過其師。紀昌者, 又學射於飛衛。飛衛曰: ‘爾先學不瞬, 而後可言射矣。’ 紀昌歸, 偃臥其妻之機下, 以目承牽挺。二年之後, 雖錐末倒皆而不瞬也。以告飛衛, 飛衛曰: ‘未也, 亞學視而後可。視小如大, 視微如著, 而後告我。’ 昌以鬮懸於牖, 南面而望之。旬日之間, 浸大也; 三年之後, 如車輪焉。以睹余物, 皆丘山也。乃以燕角之弧, 朔蓬之箛, 射之, 貫蠹之心, 而懸不絕。”

38) 『淮南子·覽冥訓』: “往古之時, 四極廢, 九州裂, 天不兼覆, 地不周載, 火熾炎而不滅, 水浩洋而不息, 猛獸食鰥民, 鷲鳥攫老弱, 於是女媧煉五色石以補蒼天, 斷龍足以立四極, 殺黑龍以濟冀州, 積蘆灰以止淫水。”

39) 『史記·叔孫通列傳』 권99: “遂與所征三十人西, 及上左右爲學者, 與其弟子百餘人, 爲綿叢野外。” “叢”는 “蕪”과 같다.

40) 중국의 전설이나 민담에도 유사한 사례가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우진, 『21세기 초 주몽서사를 둘러싼 한·중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어문학논집』 제90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5, 433~461면 참조.

41) 손정인, 『<동명왕편>의 기술성의 성격과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57집, 한민족어문학회, 2010, 289~323면.

뒤이어 본장에서 해모수와 주몽의 사적이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구성은 인심과 풍속이 순박함을 잃지 않은 동방에 새로운 성인이 출현하여 옛 성인들의 자취를 계승하였다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낸다.

동명왕 신화의 신성성을 중국의 사례와 견주어 강조하려는 특징은 종장에 서도 확인된다. 종장에는 한 고조의 기이한 출생, 광무제가 적복부(赤伏符)를 얻은 일 등이 실려 있다. 이것도 주몽의 기이한 출생과 상서로운 징조(구름 속에서 성을 쌓은 소리가 들리더니 금방 성이 만들어진 것 등)와 유사하다. 기이한 출생과 상서로운 징조는 삼황오제, 우, 탕, 문무, 진시황 등 중국의 모든 건국 황제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일부러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의 개국 황제를 예로 든 것은 고구려와 같은(또는 가장 가까운)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장에서 고구려 건국 이전의 신성한 사적을 내세우고 본장에서 해모수와 주몽의 이야기가 신성한 사적임을 보인 다음, 종장에 이르러 비슷한 시대에 일어난 중국의 신성한 사례와 견줄으로써 고구려의 건국이 “천명”에 의한 “신성한” 사건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편 종장에서는 군주가 군주답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수위(守位)”의 덕목⁴³⁾으로 “너그러움과 어둡[寬仁]”이 제시된다. 이는 중국의 건국 황제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덕목인데 특히 한나라의 처음을 연 유방과 마지막을 계승한 유비의 가장 중요한 덕성으로 표현된다.⁴⁴⁾ 즉 “관인(寬仁)”은 한나라가 포악한 진나라를 정벌하고 세력이 더 강했던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던 바탕인 동시에 4백 년의 수성을 가능케 한 덕목인 것이다.⁴⁵⁾ 종장에서 한 고조와 광무제의 고사를 제시한 뒤 주몽과 우리에게 “관인(寬仁)”의 덕목을 부여함으로써 고구려의 건국과 수성이 한나라와 마찬가지로 천명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42) “太古淳朴時，靈聖難備記。後世漸澆漓，風俗例汰侈。聖人間或生，神迹少所示。”

43) 『書·仲虺之誥』에 “克寬克仁，彰信兆民.”이라 하였는데 孔穎達의 傳에 “言湯寬仁之德，明信於天下.”라 하였다.

44) 『前漢紀·前漢高祖皇帝紀』 권1: “漢高祖諱邦·寬仁愛人，有大智度.”; 『三國志·蜀書二·先主傳』 권32: “劉備寬仁有度，能得人死力.”

45) 『太平御覽·兵部二·敘兵下』 권271: “及項羽尚暴而滅，漢以寬仁而興，故能掃除秦之苛暴矣.”

IV. 인물 형상에 나타난 신성(神聖)의 양상

대우(對偶)와 운(韻)을 맞추려고 글자를 바꾸거나 중요한 순간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묘사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동명왕편>에 보이는 사건 전개는 대체로 협주에 나타난 『구삼국사』의 내용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다. 모든 내용이 동명왕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동명왕편>의 일부에서 변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목되는데 특히 주몽과 유화가 이별하는 장면이 그러하다.

스스로 생각하셨네. ‘하늘의 손자가
말이나 기르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가슴을 쓰다듬으며 항상 몰래 말씀하셨네.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장차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도 세우고 성과 마을도 세우리라.
너그러우신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까닭에
떠나기가 참으로 쉽지 않구나!”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흐르는 맑은 눈물을 닦으시고는
“바라건대 너는 그런 생각일랑 말아라.
나도 항상 가슴 아파하던 일이었다.”

自思‘天之孫，廝牧良可恥!’ 捫心常竊導: “吾生不如死，
意將往南土，立國立城市。爲緣慈母在，離別誠未易!”
其母聞此言，潛然拭清淚: “汝幸勿爲念，我亦常痛瘡。”

『구삼국사』에는 주몽이 유화에게 직접 속마음을 말한 것으로 되어있는 데⁴⁶⁾ 이규보는 이를 주몽이 혼잣말을 하고 유화가 우연히 듣게 된 것으로 개작하였다. 어머니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직접 토로한다

46) “王使朱蒙牧馬，欲試其意。朱蒙內自懷恨，謂母曰：‘我是天帝之孫，爲人牧馬，生不如死。欲往南土，造國家，母在，不敢自專。’其母曰：‘此，吾之所以日夜腐心也。’”

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주몽과 같은 성인이 효의 덕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셈이어서 믿기 어려운 일이 된다. 이에 이규보는 주몽의 혼잣말을 유화가 몰래 들었다는 상황, 즉 실제 가능한 사건처럼 개작함으로써 ① 주몽이 지닌 “관인(寬仁)”의 덕성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② 동명왕 신화가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라는 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또한 유화가 눈물을 참는 장면을 보탬으로써 자식에 대한 사랑과 강인한 의지까지 형상화하였다.⁴⁷⁾

이처럼 <동명왕편>은 서술 체계뿐만 아니라 인물 형상에 있어서도 동명왕의 신성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견해의 또 다른 근거로는 해모수와 유화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우리의 이야기가 매우 소략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만약 동명왕 이야기를 온전한 삼대기 형식으로 구성한다면 해모수는 주몽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적 인물로서 그려져야 하며 우리 또한 동명왕의 성취가 온전하게 계승됨을 보여주는 부수적 인물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가 소략한 것은 삼대기 형식에 맞지만 해모수가 주몽만큼이나 비중 있는 인물로 형상화된 것은 그렇지 않다. 『구삼국사』에는 해모수와 우리 이야기 모두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이규보는 해모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서술하면서도 우리 이야기는 매우 소략하게 처리하였던 것이다.

이규보가 동명왕 신화를 귀환(鬼幻)이 아니라 신성(神聖)이라 인식한 근거는 동명왕의 사적이 천명에 따른 결과임을 인정할 결과이다. 이러한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규보는 부계와 모계의 혈통이 지닌 신성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천제로부터 내려온 천명이 천자(天子)인 해모수와 신모(神母)인 유화를 통해 그 아들인 주몽에게 온전히 계승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주몽의 신성성을 정당화한 것이다. 해모수가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47) 역사적 필연성과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작은 해모수의 경우에도 보인다. 후사를 얻기 위해 유화를 유혹하는 해모수의 행위에 대해 “이는 미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후사를 낳는 일이 급해서였다(茲非悅紛華, 誠急生繼嗣)”라는 변명을 덧붙여 이후에 나타나는 해모수의 속임수가 모두 천명에 의한 부득이한 사건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나라 신작 3년⁴⁸⁾에 초여름 북두칠성의 자루가 사방(巳方)을 가리킬 때⁴⁹⁾
 해동의 해모수는 진실로 하늘의 아들이셔서
 처음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몸소 오류이 끄는 수레에 올라타셨네.
 따르는 백여 명의 사람들도 깃털 드리운 고니를 타고 있었지.
 맑은 음악이 아름답게 울리고 빛깔 구름이 무성하게 떠 있었네.
 예부터 명을 받은 임금, 어찌 하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겠는가?
 대낮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예전엔 보지 못한 바라네.
 아침엔 인간 세상에 계시다가 저녁이면 하늘의 궁궐로 돌아가셨네.
 내가 옛사람에게 듣기로는 하늘이 땅하고 떨어진 것이
 이억 만 팔천하고도 칠백 팔십 리라네.
 사다리로도 오르기 어렵고 날개로 날아도 쉬 지킬 텐데
 아침저녁 마음대로 오르내리시니 이러한 이치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漢神雀三年，孟夏斗立巳，海東解慕漱，眞是天之子，
 初從空中下，身乘五龍軌，從者百餘人，騎鵠紛繚襪。
 清樂動繡洋，彩雲浮旖旎，自古受命君，何是非天賜？
 白日下青冥，從昔所未視，朝居人世中，暮反天宮裡。
 吾聞於古人，蒼穹之去地，二億萬八千，七百八十里。
 梯棧躡難升，羽翮飛易瘁，朝夕恣升降，此理復何爾？

주몽의 신성한 행적에 대해서는 기존연구에서 자세하게 언급된 바 있으나 해모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략하였다. 해모수의 등장을 소개하는 부분만 해도 24구절이나 되니 <동명왕편>이라는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해모수의 행적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명왕편>의 다른 부분과 비교할 때 위에 인용한 부분이 지니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해모수가 등장하는 장면이 매우 길고 자세하다. 『구삼국사』에 보이지 않는 화려한 표현을 다채롭게 활용하여 해모수의 행차를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해모수에 대한 칭송과 감탄은 주몽의 행적을 서술한 부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예컨대 『구삼국사』의 “음악(音樂)”을 “청악(淸樂)”으로 고쳤는데, “청악”은 고구려와 동시대인 한나라의 음악을 가리킨

48) 漢 宣帝 神爵(B.C.61~B.C.58) 3년은 B.C.59년이다. “神雀”은 “神爵”의 잘못이다.

49) 立夏 戌時에 斗柄이 巳方을 가리키므로 이 구절은 초여름인 4월을 가리킨다.

다.⁵⁰⁾ 고구려가 한나라만큼이나 신성한 나라임을 암시하기 위해 표현을 고친 것이다. “장양(獐羊)”은 덕(德)이 있는 소리를 뜻하므로⁵¹⁾ 해모수가 덕을 갖춘 인물임을 암시하고 “삼시(糝纒)”와 “의니(旃旆)”는 황제나 신선의 행차를 묘사할 때 쓰이는 관습적인 의태어이므로 해모수의 신성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⁵²⁾

②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시기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해모수의 강림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이는 종장에 보이는 “하물며 솔직하게 쓴 글이어서 한 글자도 거짓이 없음에랴?(況是直筆文, 一字無虛字)”와 호응하여 수미일관의 효과를 거둔다. 또한 『구삼국사』에 “漢神雀三年四月甲寅”이라 된 것을 “斗立巳”라는 천문(天文) 현상으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천명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였다.

④ 해모수가 천명을 받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천지자(天之子)”, “수명군(受命君)”, “천사(天賜)”, “천궁(天宮)”⁵³⁾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몽의 행적에도 “천(天), 신(神), 성(聖)”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해모수의 능력과 품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주몽 또한 천명을 계승한 성인임이 분명해진다.

⑤ 대낮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아침저녁으로 오르내린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 것은 고구려가 동방의 변방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불식하려는 의도를 잘 드러낸다. 이는 서문에서 “우리나라가 본디 성인이 봉해진 땅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한 의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⑥ 해모수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해모수가 나라를 세운 사실은

50) “清樂”은 漢의 민간음악인 清商樂을 가리키기도 한다. 平調(宮調), 清調(商調), 瑟調(角調)로 구성되어 “清商三調”라고도 한다.

51) “獐羊(獐羊)”은 有德한 소리를 가리키는 의성어이다. 王儉의 <楮淵碑文>(『文選·碑文上』 권58)에 “悵悵餘微, 獐羊遺烈”이라 하였는데 劉良이 “獐羊, 德音也.”라 注하였다.

52) “糝纒”과 “旃旆”가 함께 쓰인 예로는 황제의 행차를 묘사한 揚雄의 <甘泉賦>(『文選·郊祀』 권7)에 보이는 “雙輦絡綵綏, 灑摩糝纒·騰清霄而軼浮景兮, 夫何旃旆瑯偁之旃旆也.”를 들 수 있다. 구름 속에서 음악이 들린다는 상황 설정 또한 황제와 신선의 고사에 자주 보인다. 『太平御覽·天部八·雲』 권8: “帝(漢武帝)登尋眞之臺, 齋戒到七月七日夜, 忽見天西南如白雲起, 直來趣宮, 須臾, 聞雲中簫鼓之聲, 復半食頃, 西王母至, 乘紫雲之輦. 臨發, 雲氣勃鬱, 盡爲香氣.”

53) 天宮은 天帝가 사는 궁궐을 가리키므로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생략하였다. 『구삼국사』와 『삼국유사』 및 중국의 역사서에 따르면 해모수가 천제의 명을 받아 북부여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⁵⁴⁾ 그런데 <동명왕편>에는 건국의 과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후사를 잇기 위해 유희와 결연하는 이야기만이 나타난다. 이는 주몽을 수성(守成)의 군주가 아닌 건국의 성인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생략으로 보인다.

해모수의 경우와는 반대로 우리가 주몽을 계승하는 이야기가 최소한으로 축소된 것도 <동명왕편>의 또 다른 특징이다. 『구삼국사』에는 유리의 행적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나 <동명왕편>에서는 “빠어난 자질에 기특한 절개를 지닌 만아들 이름은 유리라네. 칼을 얻어 아버지의 자리를 이었으며 물둥이를 막아 사람들의 험담을 그치게 했네”라 하여 고작 네 구절로 축소되어 있다.⁵⁵⁾ 주몽의 행적 가운데 건국을 위한 과정만이 자세하게 서술될 뿐 유리에 의한 계사(繼嗣) 과정이 대폭 생략된 것이다. 『구삼국사』에서는 해모수와 주몽 모두 건국과 계사의 행적을 보이지만 <동명왕편>에서는 “해모수=계사”, “주몽=건국”이라는 서사 구조로 단순화된 것이다. 해모수가 천명을 전달하고 주몽이 이를 실현한다는 인물 설정은 “해모수=건국의 배경과 근거”가 “주몽=건국의 실천과 완성”으로 연결되는 논리적인 서사 구조를 만들어낸다.

한편 <동명왕편>에는 주몽의 본부인, 즉 유리의 모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몽은 부여에 있을 때 예씨(禮氏)와 혼인하였으나 예씨에게는 신성한 이야기가 전하지 않는다. 『구삼국사』에는 예씨가 아들인 유리에게 “너는 일정한 아버지가 없다”며 농담을 건네자 실망한 유리가 자결하려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다.⁵⁶⁾ 건국 성인의 배우자라고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이규보가 유리의 계사 부분을 생략한

54) 『구삼국사』에는 해모수의 건국 일화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夫余王解夫妻[婁]老無子，祭山川求嗣。所御馬至鯉淵，見大石流淚。王怪之，使人轉其石，有小兒金色蛙形。王曰：‘此天錫我令胤乎！’乃收養之，名曰金蛙，立爲太子。其相阿蘭弗曰：‘日者天降我曰：‘將使吾子孫立國於此，汝其避之。’東海之濱有地，號迦葉原，土宜五穀，可都也。’阿蘭弗勸王移都，号東夫余。於舊都爲天帝子來都。”

55) “傲儻有奇節，元子曰類利。得劍繼父位，塞盆止人罽。”

56) “類利少有奇節云云。少以彈雀爲業，見一婦戴水盆，彈破之。其女媼而罽曰：‘無父之兒，彈破我盆！’類利大慙，以泥丸彈之，塞盆孔如故。歸家問母曰：‘我父是誰？’母以類利年少戲之曰：‘汝無定父。’類利立曰：‘人無定父，將何面目見人乎？’遂欲自刎。”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

천지와 음양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긴 까닭에 건국 성군의 이야기에는 “순(舜)과 이비(二妃)”, “문왕(文王)과 태사(太姒)”처럼 내조의 공이 큰 배우자, 즉 국모(國母) 이야기가 결부되기 마련이다. <동명왕편>에서 국모 역할을 맡은 인물은 어머니인 유화이다. 『구삼국사』에는 유화의 아름다움이 한고(漢皇)의 선녀에 비유되었는데 <동명왕편>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낙수(洛水)의 여신인 복비(宓妃)와도 같다고 표현된다.⁵⁷⁾ 복비는 보통 하백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유화가 그 어머니를 빼닮았다는 뜻이 된다. 『구삼국사』에 언급되지 않은 유화의 모계혈통을 밝힘으로써 유화는 부계와 모계 모두 신성한 존재가 된다. 아버지인 하백 또한 천제가 임명한 신하이기 때문이다.⁵⁸⁾

문학적 표현으로 유화의 신성성을 암시한 것은 물고기를 훔쳐 가는 유화에 대한 묘사에서도 드러난다. 이규보는 『구삼국사』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유화의 민첩함을 “어부가 물속을 보니 기이한 짐승이 매우 빨리 움직였다(漁師觀波中, 奇獸行駘駘)”라 표현하였다. “비사(駘駘)”는 하백의 움직임을 형용할 때 쓰이는 말이므로 이는 유화 또한 아버지인 하백만큼 신성한 존재임을 암시한다.⁵⁹⁾

유화의 신성성을 암시하는 표현은 이후 유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하게 만든다. 이후의 사건 전개에서 유화는 주몽의 성장과 건국을 돕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주몽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 준 것, 자기 때문에 망설이는 주몽을 설득하여 길을 떠나게 하는 것, 말의 혀에 침을 꽂아 신마(神馬)를 얻도록 도와준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 역사서 가운데 동명왕 신화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위서』에서조차 주몽의 모친은 “하백녀(河伯女)”라 언급될 뿐 “유화(柳花)”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주몽을 돕는 일화 또한 모두 생략되어 있어서 천명의 전달자나 건국의 조력자라는 성격이 전혀 나타나지

57) 『구삼국사』에서 “神姿艷麗, 雜佩鏘洋, 與漢皇無異.”라고 표현한 것을 <동명왕편>에서는 “鐙琅佩玉鳴, 綽約顏花媚. 初疑漢皇濱, 復想洛水沚.”라 개작하였다.

58) 晉 干寶, 『搜神記』 권4: “太時弘農馮夷, 華陰潼鄉隄首人也. 以八月上庚日, 渡河溺死, 天帝署爲河伯.”

59) 杜甫, <有事于南郊賦>, 《杜詩詳註》 권24: “雷公、河伯, 咸駘駘以修營; 霜女、江妃, 乍紛紛而曖曖.”

않는다.⁶⁰⁾

그런데 『구삼국사』와 <동명왕편>은 주몽에게 부여해도 괜찮을 능력을 유화에게 부여함으로써 유화의 신성성을 강조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주몽의 어머니는 처음에 시비(侍婢)로 표현되었으나 이후 하백녀(河伯女), 하백지녀(河伯之女), 유화(柳花)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신분 또한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건국신화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점차 신성한 존재로 격상되었던 것이다.⁶¹⁾ 주몽의 부계혈통뿐만 아니라 모계혈통 또한 신성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에 따라 유화의 신분과 능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구삼국사』에 이르러 “신모(神母)”로 격상된 유화의 신성성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 <동명왕편>에서는 서사 전개에 불필요한 부분에서도 유화에 대한 서술을 빠뜨리지 않는다.

예컨대 <동명왕편>에서 주몽에게 보리 종자를 전해주는 부분(雙鳩含麥飛, 來作神母使)은 앞뒤의 맥락으로 볼 때 굳이 들어갈 까닭이 없는 구절이다. 주몽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 보리 종자를 가져갈 생각이었다든가 나라를 세운 뒤 유화가 전해준 보리 종자 덕분에 쉽게 농업을 일으켰다든가 하는 서술이 없기 때문에 맥락상 이 구절은 굳너더기에 가깝다.

건국 과정에서는 해모수에게서 물려받은 용기와 무예가 필요하지만 수성에 들어서면 농업을 중심으로 한 기반산업이 필요하다. 『구삼국사』에 이르러 유화는 수신(水神)에서 농경의 신으로 바뀌게 되는데⁶²⁾ 이는 유화가 천명을

60) 『魏書·高句麗列傳』 권100: “高句麗者, 出於夫餘, 自言先祖朱蒙, 朱蒙母河伯女, 爲夫餘王閉於室中, 爲日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 既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 夫餘王棄之與犬, 犬不食; 棄之與豕, 豕又不食; 棄之於路, 牛馬避之; 後棄之野, 衆鳥以毛茹之. 夫餘王割剖之, 不能破, 遂還其母. 其母以物裹之, 置於暖處, 有一男破殼而出. 及其長也, 字之曰朱蒙, 其俗言朱蒙者, 善射也. 夫餘人以朱蒙非人所生, 將有異志, 請除之, 王不聽, 命之養馬, 朱蒙每私試, 知有善惡, 駿者減食令瘦, 鶩者善養令肥. 夫餘王以肥者自乘, 以瘦者給朱蒙. 後狩於田, 以朱蒙善射, 限之一矢. 朱蒙雖矢少, 殪獸甚多. 夫餘之臣又謀殺之. 朱蒙母陰知, 告朱蒙曰: ‘國將害汝, 以汝才略, 宜遠適四方.’ 朱蒙乃與烏引、烏達等二人, 棄夫餘, 東南走. 中道遇一大水, 欲濟無梁, 夫餘人追之甚急. 朱蒙告水曰: ‘我是日子, 河伯外孫, 今日逃走, 追兵垂及, 如何得濟?’ 於上魚鱉並浮, 爲之成橋, 朱蒙得渡, 魚鱉乃解, 追騎不得渡. 朱蒙遂至普述水, 遇見三人, 其一人著麻衣, 一人著納衣, 一人著水藁衣, 與朱蒙至紇升骨城, 遂居焉, 號曰高句麗, 因以爲氏焉. 初, 朱蒙在夫餘時, 妻懷孕, 朱蒙逃後生一子, 字始闔諳. 及長, 知朱蒙爲國主, 卽與母亡而歸之, 名之曰闔達, 委之國事. 朱蒙死, 闔達代立.”

61) 이지영, 『河伯女, 柳花를 둘러싼 고구려 건국신화의 전승 문제』, 『동아시아고대학』 제1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19-48면.

전달하는 신모(神母)의 역할과 고구려의 건국과 수성에 이바지하는 국모(國母)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인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규보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구삼국사』의 내용 가운데 해모수와 유화를 돋보이게 만드는 부분을 충실히 재현하여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의 건국과 수성이 필연적이고 정당한 역사적 사건임을 누차 강조한다.⁶³⁾ 고구려는 이규보의 조국인 고려의 뿌리이기도 하다. 고구려의 건국이 천명에 근거한 신성의 발현이라면 고려는 그러한 신성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나라가 된다. 이것이 곧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통해 말하고자 한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영원히 자손에게 전하여 오래도록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리라(永永傳子孫, 御國多年紀)”는 염원으로 <동명왕편>을 끝맺은 까닭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V. 결론

<동명왕편>은 『구삼국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그러나 이규보는 산문 기록을 한시 형식으로 바꾸는 동시에 동명왕 신화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상당한 분량의 서장과 종장을 마련하는 한편 창작의 경위를 알려주는 자세한 서문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구삼국사』에 기록된 동명왕의 사적을 구태여 다시 시화(詩化)한 궁극적인 의도에 대해 여러 가지 추론이 제시되었다. 자국 중심의 강렬한 민족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의견과 관직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동명왕편>의 서술 체계나 표현 방식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서문의 내용을 단서로 삼아 귀환(鬼幻)과 대비되는 신성(神聖)의 형상화가 주요한 창작 동기임을 밝히고 그것이 <동명왕편>의 서술 체계

62) 이에 대해서는 김중대, 『주몽신화의 柳花 행동을 통해 본 문화변화 양상에 대한 一考』, 『우리문학연구』 제33집, 우리문화회, 2011, 3~26면 참조.

63) 『구삼국사』와 <동명왕편>에서 신성한 존재로 형상화된 유화는 이후로도 부여계 국가 신화에서 수신(攄神)으로 숭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서대석, 『백제신화 연구』, 『백제논총』 제1집, 백제문화개발위원회, 1985 참조.

와 인물 형상에 반영된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천명과 그것을 실현한 성인의 행적을 서장과 종장에 서술함으로써 본장에 기술된 동명왕 신화의 신성성을 뒷받침하려 했다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구삼국사』의 내용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개작한 이유, 즉 해모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서술하면서도 정작 건국의 이야기를 생략한 것, 유희의 역할을 중시한 것, 유리에 대한 서술을 최소화한 것 등의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동명왕편>의 창작 목적과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전하지 않는 만큼 본고의 논의는 설득력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다만 작품 바깥의 정보가 아닌 서문, 서술 체계, 인물 설정, 표현 방식 등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동명왕편>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논쟁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동명왕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언중, 『한자의 뿌리』 1, 문학동네, 2001.
이복규, 『부여, 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1998.
이지영,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 월인, 2000.
조현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허진웅, 『중국 고대사회』, 지식산업사, 1997.

2. 논문

- 김경수, 『이규보의 서사시 <동명왕편>의 구조와 해석』, 『사회개발논총』 제15집,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3, 111~130면.
김종대, 『주몽신화의 柳花 행동을 통해 본 문화변화 양상에 대한 一考』, 『우리문학연구』 제33집, 우리문학회, 2011, 3~26면.
김지혜, 『통일 이후 문학·역사 교과 통합 수업 연구: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73면.
김철준, 『<동명왕편>에 보이는 神母의 성격에 대하여』, 『혜암 유흥렬박사 화갑기념논총』, 탐구당, 1971, 455~464면.
박명호, 『이규보 <동명왕편>의 창작동기』, 『사총』 제52집,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0, 33~59면.
박성지, 『<동명왕편>에 나타난 神異의 의미』, 『이화어문논집』 제20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2002, 275~293면.
박창희, 『이규보의 <동명왕편>시』, 『역사교육』 제11·12합집, 역사교육연구회, 1969, 191~212면.
변동명, 『이규보의 <동명왕편> 찬술과 그 사학사적 위치』, 『역사학연구』 제68집, 호남사학회, 2017, 1~28면.
서대석, 『백제신화 연구』, 『백제논총』 제1집, 백제문화개발위원회, 1985, 1~8면.
손정인, 『이규보의 <동명왕편>의 구성양상과 작품의 성격』, 『한민족어문학』 제13집, 한민족어문학회, 1986, 323~344면.
_____, 『<동명왕편>의 기술성의 성격과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57집, 한민족어문학회, 2010, 289~323면.
신용호, 『이규보의 <동명왕편> 연구』, 『어문논집』 제21집, 안암어문학회, 1980, 55~66면.
신현옥, 『글로벌 문화콘텐츠 창작 소재로서 영웅서사시의 가치에 관한 연구: 이규보의

- <동명왕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301면.
- 이복규, 『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성과 검토』, 『고구려연구』 제1집, 고구려발해학회, 1995, 81~102면.
- 이세현,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자아정체성 형성 연구: <동명왕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78면.
- 이우성, 『고려중기의 민족서사시: <동명왕편>과 <제왕운기>의 연구』, 『논문집』, 성균관대학교, 1962, 84~117면.
- 이유진, 『21세기 초 주몽서사를 둘러싼 한·중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어문학논집』 제90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15, 433~461면.
- 이주영, 『삼국시대 건국신화의 기반과 전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263면.
- 이지영, 『河伯女, 柳花를 둘러싼 고구려 건국신화의 전승 문제』, 『동아시아고대학』 제1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19~48면.
- 이학주, 『<동명왕편>을 통해 본 이규보의 스토리텔링 전개』, 『한국문학과 예술』 제24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7, 117~137면.
- 이홍직, 『고구려의 흥기(1)』, 『국사상의 제문제』 4, 국사편찬위원회, 1959.
- , 『고구려의 흥기(2)』, 『국사상의 제문제』 5, 국사편찬위원회, 1959.
- 장덕순, 『영웅서사시 <동명왕>』, 『인문과학』 제5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0, 101~123면.
-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제10집,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165~214면.
- 주중연, 『서사시 <동명왕편>에 대한 일고찰』, 『어문학논총』 제7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8, 35~49면.
- 하강진, 『<동명왕편>의 창작 동기 재고』, 『문창어문논집』 제35집, 문창어문학회, 1998, 65~82면.
- 하승길, 『<동명왕편>의 성격에 대한 재론: 창작 동기와 神異性を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2집, 동악어문학회, 2009, 143~171면.
- 황순구, 『서사시 <동명왕편>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129면.

A Study on the Description System and Character's Distinct Features of *Dongmyeongwangbyeon*

Gu, Bonhye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reative motivation through the preface of *Dongmyeongwangbyeon*[The Epic about King Dongmyeong of Goguryeo] and reveal the distinct features of description system and characters. The most important mention in the preface is that the story of King Dongmyeong was not a nonsense but a historical fact that realized the mandate from heaven. This is a clue to the fact that the creative motivation of *Dongmyeongwangbyeon* is to represent the sanctity of King Dongmyeong more effectively.

Divinity, evil spirits and illusions all are events that can not be understood by human knowledge, but divine events are (1)historical facts made by the mandate from heaven, (2)things done under the purpose of the benefit of the whole world. Li Gyubo seems to have created his own description and expression system of *Dongmyeongwangbyeon* by modifying the contents of *Old History of Three Kingdoms* in order to effectively grant such sanctity to King Dongmyeong.

The preface of *Dongmyeongwangbyeon* is composed of the story of ancient Chinese Emperors, who received the Heavenly Order. In the last part, the events taken place by two emperors of Han dynasty are mentioned. In the main chapter, the actions of Haemosu and Jumong, which are similar to those of Chinese saints, are specifically embodied in detail. The description system like this is the result of the intention to prove that the act of King Dongmyeong was actual historical fact and sacred act based on the Heavenly Order by citing or associating the sacred case of China recognized as history.

In *Dongmyeongwangbyeon*, (1)Haemosu is described as the recipient of the mandate from heaven, (2)the story of him has as much detail as Jumong's, (3)Yuhwa is described as sacred mother, and (4)Yuri's story is introduced to the minimum. As a result, it has the narrative structure that the Haemosu's actions for inheritance and Jumong's

founding a new country through the help of Yuhwa is logically connected, thus creating the effect of justifying the sacredness of the establishment of Goguryeo.

keywords: Li Gyubo(李奎報), *Dongmyeongwangbyeon*[東明王篇], Haemosu[解慕漱], Jumong[朱蒙], Yuhwa[柳花], Heaven's Will, Divinity, Description System, Character

접수일자: 2018. 9. 30.

심사기간: 2018. 10. 1. ~2018. 11. 10.

게재결정: 2018. 11. 10.